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장애수용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유 훈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 장애수용,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치영역의 확대'의 척도를 통해 측정한 장애수용이 부모애착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치영역의 확대가 장애대학생의 아버지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장애대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은 장애수용에 대해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애착은 장애대학생 내담자와의 진로상담에서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주제이며,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애착대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준비행동이 증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장애수용, 가치영역의 확대, 진로준비행동

학 번 : 2012-21337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진로문제와 장애대학생 ····· 8
2. 진로준비행동 ····· 10
3. 장애수용 ····· 11
1) 장애수용 ····· 11
2) 장애수용의 가치변화 이론 ····· 12
3)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
4) 장애수용과 진로준비행동 ····· 17
5) 애착과 장애수용 ····· 19
4. 애착 ····· 22
1)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 23

Ⅲ. 연구 방법 ····· 25
1. 연구대상 ····· 25
2. 연구도구 ····· 26
1) 부모애착 ····· 26
2) 장애수용 ····· 27
3) 진로준비행동 ····· 28
3. 분석방법 ····· 29

Ⅳ. 연구결과 ····· 30
1. 측정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 30
2.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매개효과 검증 ····· 32

Ⅴ. 논의 ····· 35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35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38

참고문헌 ····· 40

부 록 ····· 51

Abstract ····· 59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5
<표 2> 장애수용척도 세부 구성 내용 ····· 28
<표 3> 각 변인 간 상관 ····· 31
<표 4> 가치영역의 확대의 매개효과 검증 ····· 33

그 림 목 차

<그림 1> 가설모형 ····· 7
<그림 2> 부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매개효과 ····· 3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는 2,457,626명이며, 이 중 38.3%인 885,025명이 취업 및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점의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2.3%와 비교하여 24.0%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0%(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0.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55,354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실업률은 5.9%에 이르고 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국 실업률 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김호진, 최종철, 양수정, 201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46.9%, 여성 장애인은 20.9%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2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8.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3.8%)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최종철, 양수정, 2013).

이상의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구직에 있어 비장애인들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단순노무직과 제조업 등으로 그 직군이 국한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자기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열악한 진로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1990년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살펴보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그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선 정책적·제도적인 노력 외에도 장애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장애를 가진 개인 스스로 직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준비도를 비교한 김동일 외(2011)의 연구에선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자기이해나 동기 수준이 더 높은 반면 진로활동 경험이나 취업과 관련된 실제적 실행은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 높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는데 있어 수동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장애인이 진로와 관련한 한계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진로에 관한 주관적 지각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 정도에 따라서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의 정도가 달라지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원호, 2010).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진로상담 장면에서 장애

인이 진로에 대한 장벽을 과대추정하지 않도록 돕고 진로와 관련 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장애수용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 장애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의 초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진로(career)란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김계현, 1995).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김봉환(1997)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인지적 혹은 태도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정의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앞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키워드로 쳤을 때 검색되는 461개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에 대한 선택과 준비라는 중요한 과업에 마주해 있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도적인 지원에 더해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병행된다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장애

수용을 상정하였다. 장애수용은 장애를 겪은 개인이 장애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장애로 인해 상실한 것 보다 잔존해있는 장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Smart, 2001)을 의미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뜻하며, 이것은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성공적이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박향연,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장애수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이 낮아 포기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거나 진로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erling & Betz, 1990; Tokar, Fischer, & Subich, 1998).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더 확신적이고 결정상태가 높으며(Fuqua et al, 1988),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이정희, 1999)이 보고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진로결정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장성동, 2010), 장애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체감이 높고, 성숙한 정체감은 곧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통해 진로흥미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정혜, 2012). 이러한 결과로부터 장애를 삶의 장애물로 여기기보다 새로운 도전이나 각오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애수용(김성회, 1999)이 진로와 관련 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장애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자는 Wright(1983)가 제시한 성공적으로 장애를 수용하기 위한 4가지의 가치변화, 곧 가치영역의 확대, 신체적 조건의 수용,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 비교가치의 내적인 전환 중 가치영역의 확대가 의미하는 바가 곧 장애수용 개념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치영역의 확대는 장애로 인해 상실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수용에 대한 여러 정의들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가치영역의 확대를 통해 측정한 장애수용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한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Rice(1990)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정체감 그리고 정서적 적응 사이에 일관성 있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고, Cooperdimith(1981)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정서적으로 따뜻한 지지를 제공하거나 자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장애인들은 주변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물리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장애인 스스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장애수용이 높아지고(Prezza & Pacilli, 2002; Canty-Mitchell, & Zimet, 2000),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Li & Moore, 1998, 윤성애, 2003)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주변의 지지를 통해 장애인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정이 장애가 자신의 삶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해준다(Ablon, 2002). 지금까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장애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 중에서도 애착의 관점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해보았다.

김원호(2010)는 장애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이 태어날 때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

로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애착의 차원에서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애착이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서(Ainsworth & Bell, 1970), 애착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 안전감이 환경에의 적극적인 탐색을 촉진시킨다(Ainsworth, 1989; Bowlby, 1988).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이 청년기까지 이어져 학교와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 그리고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Blustein & Prezioso, 1995), 경험적 연구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진로결정을 비롯하여 진로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방아영, 2009; 유지선, 2004; 이광희, 2008; 최옥현, 2007; O'Brein & Fassinger, 1993; 진현정, 2008에서 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은영(2012)의 연구에서 성인애착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달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진현정(2010)은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지각된 부모의 지지가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고(이윤경, 2009),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도 진로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부모로 나타났다(이미아, 강영심, 2011).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장애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수용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곧, 장애수용이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 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문제점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많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진로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수용이 삶 속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척도를 통해 측정된 장애수용의 매개변수로서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를 통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 된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장애대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영역의 확대가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가설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문제와 장애대학생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3%였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5.9%로 전체인구 실업률 3.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는 수는 늘어나는 반면 대졸자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대졸자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 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장애인들 중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이 4.5%로 일반인 대졸이상 실업률 3.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대학생들의 구직이 비장애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이는 대학에 재학 중일 때 학업수행이나 취업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이옥경, 2003).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장애대학생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 의한 구직난을 토로하는데 반해, 장애인 대학생은 자신의 장애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에 예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세철, 2004). 이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장애대학생의 진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현상은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진로장벽은 취업, 학업, 직장생활 등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나 동기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

로서 개인에게 인식되는 다양한 부정적 사건을 의미한다(황매향, 2007).

장애인에게 신체적 장애는 진로장벽으로 기능하여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련 업종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나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양한 진로이론들로부터 지각 된 진로에 대한 장벽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범위와 유형을 제한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외적인 요소 즉, 맥락적 요인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개인이 인식하는 진로에 대한 장벽은 맥락적 요인 중 하나인데, 맥락적 요인은 개인의 성별, 장애, 건강 등의 개인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와 장애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곧 자신의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진로에 대한 흥미, 목표설정과 실행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Lent와 Brown, 그리고 Hackett(1994)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나타나는 진로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는 장애에서 비롯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의 논의들로부터 장애를 가진 대학생 간에 나타나는 진로선택과 진로행동에 있어서의 차이 역시 진로장벽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차이에서 비롯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을 과도하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진로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장애대학생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또한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진로장벽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이 증진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자는 장애수용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2.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에 의해 90년대 후반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진로준비행동이란 개념은 그 이후로 진로상담 및 지도에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이 개념은 진로와 관련해 인지적이거나 태도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서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목표가 결정된 뒤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진로준비행동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보수집활동으로,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 자신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직업현황, 전망, 입직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 그 개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자신이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는 행동이다. 곧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획득 등과 같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들이는 실천척인 노력으로,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구입해 놓은 필요한 도구를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봉환, 1997; 윤주영, 2000; 장기명, 1998; 전미애, 2006; 최동선, 2003), 대학의 진로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행동적 요소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진숙(1998)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진로 발달에 있어서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해야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가'보다도 '무엇을 갖추고 있나'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행동의 측면이 진로상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대학생과의 비교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문제해결,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임통일, 2013),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김동일 외, 2011), 진로상담 장면에서 장애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3. 장애수용

1) 장애수용

장애수용이란 장애를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중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장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편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장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장애를 감추기 위해 긴장과 수치심으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박수경, 곽지영, 2011에서 재인용). 김성회(2000)는 장애수용을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있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장벽이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로 정의했으며, 홍려교(2011)는 장애로 비롯된 상실과 불편함 역시 자신이 가진 특성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장애로 인해 평가절하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능력을 계발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가치체계의 변화과정으로 장애수용을 규정하였다. 즉, 장애수용은 본인의 장애에 대해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을 통한 장애 극복을 반영한 개념이다(Li,1998).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객관적 지각이 아닌 주관적 지각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자기용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장애수용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관적 지각에 따라 정서와 행동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에 장애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것들이 많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장애를 부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부적응하기도 한다.

2) 장애수용의 가치변화 이론

장애수용을 손실의 수용이 개념화된 것으로서 장애를 경험한 개인에게 장애와 그에 따른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Dembo, Leviton, & Wright, 1956; Wright, 1960). Dembo와 그의 동료들(1975)은 그들의 연구에서 모든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가치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장애를 불행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잔존 능력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타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 장애에 수반되는 상실감은 남아 있더라도 남아 있는 잔존능력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Wright(1983)는 성공적으로 장애를 수용하기 위한 4가지 가치변화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가치영역의 확대, 둘째는 신체적 조건의 수용, 셋째는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 네 번째는 비교가치의 내적인 전환이다.

첫 번째, 가치영역의 확대는 장애로 인해 상실된 가치에 대한 애도과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Wright(1960)는 그 예로 장애로 인해 더 이상 뛰거나 달릴 수 없게 된 사람이 의족, 목발 혹은 휠체어 등을 이용해 '이동'이라는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곧 개인이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보다도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일상생활과 능력, 삶의 목표 등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가치영역이 확장되어 장애수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신체적 조건의 수용은 개인이 자신의 장애에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과 외모적인 측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개인은 삶이 가치가 있다는데 의심을 품지 않을 때조차 신체적인 부분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삶에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체적으로는 정상의 기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신체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될 때 그의 어려움이 줄어든다(Wright, 1960). 장애로 인한 손상보다 우정, 지성, 직업, 창조성과

같은 삶의 다른 가치들을 강조하게 되면 장애가 수용될 수 있다(Keany & Glueckauf, 1993).

세 번째, 장애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영향이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 실제보다 더 크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전파는 장애인 자신과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덜 가치 있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용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대하여 지각할 수 있다. 자기개념의 발달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복잡하게 '나'의 일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져야 하지 다른 부분까지 확대 해석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비교가치의 내적인 전환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갖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 혹은 장애를 갖기 이전의 그의 상태와 비교한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부터의 일관된 특성으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음악적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이는 비교가치가 아닌 내적인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4가지의 장애수용을 위한 가치변화 중 가치영역의 확대의 의미가 장애수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Wright(1960)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신체적 측면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이 장애와 장애를 가진 그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노력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치영역이 확대 된다고 하였다. 장애수용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장애로 인한 상실과 불편함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실의 수용과 남아 있는 가치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는 가치영역의 확대가 다른 세 가지의 하위유형 보다 장애수용

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라고 사료된다. 이는 또한 인지행동치료의 제3의 흐름으로 불리는 수용-전념치료(The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에서 정의하는 수용과 맥을 같이 한다. ACT는 인간에게 고통은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보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기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어떤 부정적 사건들이 존재하는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와 목적하는 삶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Hayes et al., 1999). 이런 정의는 장애인에게 있어 자신의 장애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상실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남아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가치영역의 확대의 정의와 놀랍게 맞닿아 있다. ACT의 관점에서 장애로 인한 고통은 장애인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고, 이때의 수용은 곧 가치영역의 확대의 의미와 상통한다.

본 연구자는 가치영역의 확대가 장애수용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Groomes와 Linkowski(2007)가 장애수용의 가치변화 이론에 기초하여 4개의 하위척도와 32개의 문항으로 만든 장애수용척도 수정본(Acceptance of Disability scale Revised: AD-R)을 사용하였는데, 각 하위척도는 기존 이론의 개념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Groomes와 Linkowski(2007)가 장애수용의 가치변화 이론에 기초하여 4개의 하위척도와 32개의 문항으로 만든 장애수용척도 수정본(Acceptance of Disability scale Revised: AD-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치영역의 확대의 의미가 장애수용을 대변한다고 여기는바, 가치영역의 확대 척도를 통해 장애수용을 측정하였다.

검사의 각 하위척도는 기존 이론의 개념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영역의 확대 척도의 문항 예>

-문항6: '비록 장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문항21: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32: '나는 나의 장애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수용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낮은 연령일수록, 남성일수록, 기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Moore, 1998; 정승원, 2012에서 재인용). 그리고 장애에 대한 특성으로는 장애수준이 경미할수록, 장애를 후천적으로 가진 것보다 선천적인 경우 일수록(홍려교, 2001), 만성적인 질환이 없을수록(박수경, 2011)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주로 장애수용을 개인적 측면에 대

해 연구한 것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환경적 요인들로는 사회적인지지(노승현, 2007; 박자경, 2009; 김선희, 2010), 고용과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박수경, 2006; 정승원, 2012)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장애수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환경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소 주변 사람들(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와 관련된 사회적지지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4) 장애수용과 진로준비행동

장애수용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없다. 장애수용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자아존중감과 진로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장애수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며,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아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

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인지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 즉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은 물론 자신의 신체적 특징 및 능력, 가치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순희, 2002).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장애로 인해 상실한 것이 아닌 남아 있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삶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Smart, 2001)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장애수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Super(1957)는 "인간의 발달은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자기자율성, 자아존중감, 자기주도성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라고 말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진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며 진로계획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종구, 1986).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진로와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며(류진혜, 김태성, 1998),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하게 작용한다.(안권순, 한건환, 2002). 이정희(1999)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보고 하였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아거부, 자아멸시,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하고,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며, 그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높은 업적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윤정혜, 1991).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이 부족하고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므로 동기부여와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한층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수용이 높은 사람 역시 장애로 인해 상실된 부분과 남아 있는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직업준비도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고(박수경, 2006; 홍려교, 2001), 중도장애인의 경우도 취업욕구에 장애수용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2009; 정민선, 2013에서 재인용).

5) 애착과 장애수용

지금까지 지각 된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은 있었지만 지각 된 부모와의 관계와 장애수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신의 부모와 첫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는데, 성장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가운데서도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유아의 성격 형성과 인지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어왔다.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Symonds(1949)가 처음으로 이론화한 부모와의 양육태도, Beaubien(1970)와 Gordon(1975) 등이 제안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그리고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이론 등이 있다.

Coopersmith(1967)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중요함을 언급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Rosenberg(1965)는 부모가 제공하는 관심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특별히 아버지와 맺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적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가치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착 관계의 지지적 기능은 발달의 과도기에 더욱 두드러져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 된 청소년은 긍정적인 학문적 자아개념을 갖는다(이은경, 1992).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개념 중에서도 '애착'을 택해 장애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애착이 어떻게 장애수용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가치영역의 확대의 의미의 관점에서 장애로 인한 상실감을 수용하고, 장애를 가진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장애수용을 정의할 때, 이는 곧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평

가에 대한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안정된 애착은 정서를 접촉하고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애착과 정서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 차단 경향이 강하며, 정서 인식의 어려움을 겪는다(Cassidy & Kobak, 1988; Wei, Vogel, Ku & Zaklik, 2005)고 보고되고 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은 양육자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아주기를 포함하는데(Bion, 1959), 안정된 양육자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 상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반영해 주므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감정상태를 잘 인식하고, 감정적 표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아동의 감정 조절능력이 발달하게 된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맺은 장애대학생은 애착의 형성 과정에서 획득한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장애로 인해 겪게 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안정된 애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다. 부모로부터 외면받기보다 보살핌을 받고 수용 받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지니고 있었다(윤소연, 1993). Sherwood(1965)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서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로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 되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수용 받는 경험을 통해 '나는 있는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고 외부 환경 역시 나에게 호의적일 것'이라는 안정된 내적작동모델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정된 애착을 통해

획득한 이러한 인식의 구조가 장애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수용을 증진 시킬 것이다.

4. 애착

애착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얻게 되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Bowlby, 1988). 애착관계는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훗날 다른 사람과 맺게 될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도와 줄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숙해 감에 따라 자신감과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간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어 간다(Bowlby, 1973). 또한 안정된 애착은 세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세계에의 탐색과 모험을 시도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기지를 제공하여 탐색과정에서 비롯되는 좌절을 처리하고 다시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과정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확인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Flum, 2001).

이처럼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계는 내적작동모형으로 기능하여 한 개인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고, 일생동안 관계의 형성과 발달과정,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Ainsworth, 1989).

Bowlby(1969)의 애착이론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개인이 성장해감과 함께 발전되어가면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맞닥뜨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 부모 및 또래의 애착이 더 안정적일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우울과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그리고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나타났다. Pappini의 연구(1992)에서 아동기로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 종단적으로 부모애착과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이 발달단계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보숙, 고재홍, 2008).

1)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은 진로발달 및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킨다(Blustein & Prezioso, 1995; Rainey & Borders, 1997). 김수임과 김창대(2009)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진로선택 및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로장벽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Flores와 O'Brien(2002)도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여러 가지 직업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빈약한 사람은 정체감 문제와 진로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Brien & Fassinger, 1993).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며 주로 부모애착에 대한 것이 많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행수는(2010)는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하고, 진현정(2010)은 정서지능이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2012)은 애착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오은영(2013)은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 장애인의 애착과 진로변인에 대해 직접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이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학생을 만나거나 해당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15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18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하고, 총 1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장애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	88	51.5
	여	83	48.5
연령	18~20세	70	41.2
	21~23세	72	42.4
	24세이상	28	16.5
학년	1학년	41	24
	2학년	49	28.7
	3학년	46	26.9
	4학년	35	20.5
장애유형	지체장애	45	26.3
	뇌병변장애	24	14.0
	시각장애	51	29.8
	청각장애	45	26.3
	언어장애	5	2.9
	기타장애	1	.6

등급	1급	62	36.5
	2급	57	33.5
	3급	23	13.5
	4급	8	4.7
	5급	9	5.3
	6급	11	6.5
장애발생	선천성	88	51.5
	후천성	83	48.5

2. 연구 도구

1) 부모애착

장애대학생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척도에서 또래애착을 제외하고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와 모 각각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PPA-R은 부와 모에 대해 각각 세 가지 차원의 하위유형(의사소통의 질, 상호신뢰감, 소외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유형은 의사소통의 질 9문항, 상호신뢰감 10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애착 점수는 신뢰감과 의사소통 차원을 합한 점수와 소외감 문항을 역채점하여 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89, .87로 보고하였으며 진현정(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93,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였고 아버지 애착 척도와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93, .92였다.

2) 장애수용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Linkowski(1971)가 장애에 대한 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만든 장애수용척도(Acceptance of Disability: AD)를 갖고 Groomes와 Linkowski(2007)가 4개의 하위척도와 32개의 문항으로 개량한 장애수용척도 수정본(Acceptance of Disability scale Revised: AD-R)을 김희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Groomes와 Linkowski(2007)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71(s), .82(e), .88(t),. 88(c)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치였으며,.김희영(2007)의 연구에서는 .72(e), .81(s), .78(c), .72(t), 장성동(2010)의 연구에서는 .82(e), .73(s), .80(c), .81(t)이었다.

본 장애수용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와 32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다. 32개의 문항 중 22개(1, 2, 4, 5, 7, 8, 9, 10, 11, 13, 14, 15, 17, 19, 20, 22, 23, 24, 26, 27, 30, 31)는 역채점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실시된 신뢰도 검사(Cronbach´s α)의 결과 장애수용척도에 대한 전체 일관성 계수는 표7과 같이 .91이며, 가치영역의

확대는 .83, 신체적 조건의 수용은 .80,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은 .83, 비교가치의 내적인 전환은 .83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표 2> 장애수용척도 세부 구성 내용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계수	
장애수용 정도	가치영역의 확대	9문항	3, 6, 12, 16, 18, 21, 25, 29, 32	.83	.91
	신체적 조건의 수용	5문항	5, 9, 14, 24, 31	.80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	9문항	1, 8, 11, 15, 17, 20, 22, 27, 30	.83	
	비교가치의 내적인 전환	9문항	2, 4, 7, 10, 13, 19, 23, 26, 28	.83	

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에 이명숙(2003)이 두 개의 문항을 추가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김봉환(1997)의 검사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교재, 장비, 자격증 등)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16개의 문항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이명숙(2003)은 인터넷 진로정보 사이트의 증가와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 진로상담센터의 접근성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하여 두 개의 문항("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

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을 추가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진로준비행동척도는 Likert 4점 척도를(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다소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사용한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장애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가치영역의 확대 척도를 통해 측정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간접효과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 간 상관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4
1 부애착	-													
1-1 부의사소통	.89**	-												
1-2 부신뢰감	.94**	.79**	-											
1-3 부소외감	.72**	.42**	.57**	-										
2 모애착	.80**	.69**	.78**	.56**	-									
2-1 모의사소통	.69**	.77**	.63**	.30**	.87**	-								
2-2 모신뢰감	.74**	.61**	.81**	.42**	.94**	.77**	-							
2-3 모소외	.55**	.26**	.46**	.79**	.68**	.33**	.51**	-						
3 장애수용	.29**	.16*	.30**	.30**	.35**	.20*	.35**	.37**	-					
3-1 가치영역	.29**	.24**	.34**	.14	.32**	.22**	.35**	.23**	.63**	-				
3-2 신체중시	.23**	.14	.22**	.23**	.24**	.18*	.23**	.19*	.72**	.21**	-			
3-3 효과차단	.16*	.06	.14	.26**	.24**	.13	.21**	.29**	.87**	.29**	.61**	-		
3-4 가치전환	.23**	.07	.24**	.31**	.29**	.10	.28**	.39**	.89**	.43**	.54**	.76**	-	
4 진로준비행동	.22**	.29**	.18*	.08	.14	.22**	.12	-.01	.23**	.31**	.13	.09	.17*	-

먼저 부애착의 경우 장애수용(r=.29,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r=.22, p<.01)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모애착의 경우 장애수용(r=.3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준비행동(r=.14, *ns*)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애착과 모애착의 하위요인들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의사소통(r=.16, p<.05), 부신뢰감(r=.30, p<.01), 부소외감(r=.30, p<.01)과, 모의사소통(r=.20, p<.05), 모신뢰감(r=.35, p<.01), 모소외감(r=.37, p<.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애착과 장애수용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치영역의 확대(r=.29, p<.01), 신체적 조건의 수용(r=.23, p<.01),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r=.16, p<.05), 비교가치에서 내적가치로의 전환(r=.23, p<.01)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모애착과 장애수용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치영역의 확대(r=.32, p<.01), 신체적 조건의 수용(r=.24, p<.01),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r=.24, p<.01), 비교가치에서 내적가치로의 전환(r=.29, p<.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장애수용은 진로준비행동(r=.2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장애수용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치영역의 확대(r=.31, p<.01)와 비교가치에서 내적가치로의 전환(r=.17, p<.05)은 정적인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신체적 조건의 수용(r=.13, *ns*)과 장애의 부정적 효과차단(r=.09, *ns*)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에서 부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애착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중 부애착의 경우에 한해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 가치영역의 매개효과 검증

		β	t	R^2	F
1단계: 부애착 →	가치영역의 확대	.29	3.84^{***}	.08	14.73^{***}
2단계: 부애착 →	진로준비행동	.22	2.87^{***}	.05	8.21^{**}
3단계: 부애착 →	진로준비	.15	1.88	.08	10.33^{***}
가치영역 →	행동	.27	3.45^{**}		

$^{**}p<.01$, $^{***}p<.00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애착이 매개변인인 가치영역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β=.29, $p<.001$), 2단계에서 부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β=.22, $p<.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가치영역의 확대는 부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 $p<.01$). 이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애착의 영향력이 2단계(β=.22)보다 3단계(β=.15)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줄어들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치영역의 확대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Sobel의 Z값은 2.89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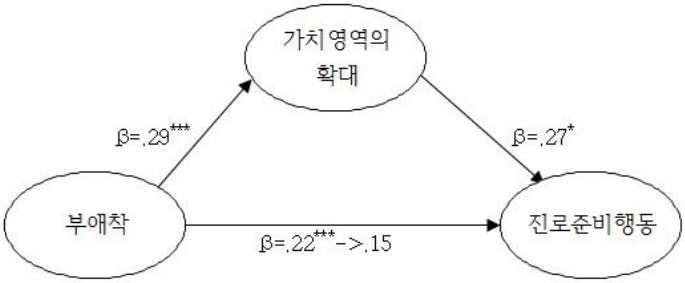

그림 2. 부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치영역의 확대의 매개효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05$, $^{***}p<.001$)

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가정하여, 부모애착이 가치영역의 확대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및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가치영역의 확대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애수용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장애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수용을 향상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실, 내담자가 부모애착을 바꾸는 것은 부모의 변화가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자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상담자가 지닌 가용 자원 내에서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개입전략일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장애대학생 내담자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담자가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가 낮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장애로 인해 실재하는 고통을 마주하여 경험하고 내담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능력, 가치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진로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과정가운데 내담자가 자신의 장애를 더 잘 수용하게 되어감에 따라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진로에 대한 상황을 현실적이고 희망적으로 지각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상담은 심리내적인 부분이나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선택이 되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장애의 등급과 능력 안에서 한계를 먼저 인식한 후에 제한된 직업군 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장애로 인해 상실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애도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을 했을 때 내담자가 상황적 한계를 현실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완전매개모형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부애착은 가치영역의 확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수용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모애착 역시 연구결과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영역의 확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상실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장애대학생 내담자에게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제공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곧, 치료적 관계 내에서 상담자와 맺게 되는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장애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자기상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고, 치료자와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새로운 관계 경험 속에서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이

를 통해 내담자가 장애로 인한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장애대학생의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장애아동의 존재에 대한 인지는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심한 재정적,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든다(Fotheringham & Creal, 1974). 장애아동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장애아동 부모는 비장애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서미다수, 1988; 김연임, 2002). 곧 자녀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떨어트리고, 이것은 다시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아동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하겠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애착만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 자녀의 진로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안진 등(2003)은 아버지는 가정 내부로 사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속으로 가족을 이끌기도 하며, 훈련과 감독을 통하여 자녀들을 어머니의 보호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라서 사회에서 그들의 책임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녀에게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주요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지영, 2012에서 재인용). 즉, 장애인에게도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해 살펴 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애착이라는 개인 외적 요인과 장애수용이라는 심리내적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치영역의 확대의 척도를 사용해 장애수용을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게 측정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장애수용에 대한 연구는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변인도 인구통계학적인 것에 대한 것이 많아 실제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는데, 본 연구에서 장애수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에 있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초점을 발견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의 12개 학교의 171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대학생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학교에서 표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연구가 지속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는데, 비장애인과 구직활동에 있어 처해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앞으로 각종 진로관련 검사들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장애인의 진로과정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 애착은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장애인대학생의 부와 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간우선(2008). **장애수용 및 삶의 만족도와 장애발생시기간의 관계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종구(1986). **自我槪念, 進路意識成熟 및 學業成就度가 職業抱負水準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적응영역별 접근.** 서울: 학지사.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2011).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 **상담학 연구, 12**(3), 915-929.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10). **중도시각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회(2000).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임,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김순희(200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임(2002). **장애아와 비장애아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원호(2010). **장애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201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력,**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진, 최종철, 양수정(2013).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행수(2010).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2007).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 장애정도, 장애부위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승현(2007). 노령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년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30-60.

류진혜, 김태성(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6, 211-232.

박성진(2009). **중도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취업욕구에 관한 상관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경(200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2**(1), 265-286.

박수경, 곽지영(2003). 시각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재활복지, 7**(2), 1-15.

박향연(2005). **모-아 애착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방아영(2009). The Role of Target of Attachment and Career Related Social Support in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미다수(1988). **정상아동 부모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보숙, 고재홍(2008). 부모-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인문논총, 22**, 133-163.

안권순, 한건환(2002). 청년기의개인특성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2012).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서술정체성 의미부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55-76.

엄정혜(2012). **장애수용,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가 장애인의 비전통적 진로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세철(2004).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 분석. **중복・지체부자유교육, 44,** 21-44.

오은영(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김연진(2003).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성애(2003). **척수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성격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정혜(1991).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주영(2000). **진로결정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및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희(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 자기 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아, 강영심(2011).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1-20.

이옥경(2003). 장애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28,** 169-195.

이윤경(2010).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의 영향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2). **청소년기 모-자녀 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1999).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문제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통일(2013). **진로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인 가족지지, 심리적독립,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비교.** 나사렛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성동(2010). **종교성이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전미애(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승원(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진현정(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민선(2012). 생활만족도와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2**(4), 169-185.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옥현(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려교(2001). **스포츠참여가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매향(2007). **진로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Ablon, J. (2002). The nature of stigma and medical conditions.

Epilepsy & Behavior, 3, 2-9

Ainsworth, M.,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173-1182.

Beaubien, C.O. (1970).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Styl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

Bion, W. R. (1959).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308-315.

Blustein, D. L., & Prezioso, M. S.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s Books.

Bowlby, J.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D.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nent*(2nd ed.) Hinsdale, Ill: The Dryden.

Canty-Mitchell, J., & Zimet, G. D.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Urb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391-400.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oopersmith.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Dembo, T., Leviton, G., & Wright, B. A. (1956). Adjustment to misfortune: A problem in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rtificial Limbs, 3,* 4-62.

Dembo. T., Leviton, G l, & Wright, B. A. (1975). Adjustment to misfortune: A Problem of social-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sychology, 22*, 1-100.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Flum, H. (1992). Relational dimension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Fotheringham, J. b., & Creal. D. (1974). "Handicapped Children and Handicapped Famili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20*. 355-373.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Guilford Press.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5*(2), 154-158.

Gordon, T. (1974).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Groomes, D. A. G., & Linkowski, D. C. (2007). Revision of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Scale: An explorato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Hayes, S. C., Strosahl, K. D., Wilson, K.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Guilford Press, New York.

Keany, K. C., & Glueckauf, R. L. (1993). Disability and value change: An overview and reanalysis of acceptance of loss theory.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199-210.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i, L. & Moore, D. (199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1), 13-25

Linkowski, D. C. (1971). A scale to measure acceptance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14*, 236-244.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69.

Pap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420-440.

Prezza, M., & Pacilli, M. G. (2002).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and friends and sever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 422-429.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60-172.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 - 537.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rling, D. A., & Betz, N. E. (199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Fear of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1-97.

Sherwood, J. J. (1965). Self-identity and referent others. *Sociometry, 28*, 66-81.

Smart, J. (2001). *Disability, Society and the Individual.* Maryland: An Aspen Publication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Brothers.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Szymanski, E. M., & Trueda, H. T. (1994). Castifi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otential disempowering aspects of classification in disability servic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0*, 12-20.

Tokar, D. M., Fischer, A. R., & Subich, L. M. (1998). Personality and Vocational Behavior: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2), 115-153.

Trueba, H., Cheng, L., & Ima, K. (1993). *Myth or reality: Adaptive strategies of Asian Americans in California.* Psychology Press.

Wei, M., Vogel, D. L., Ku, T.-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right, B. A. (1960). *Physical dis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2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부 록

부록 1. 부모애착 수준 척도
부록 2. 장애수용 척도
부록 3. 진로준비행동 척도
부록 4.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부록 1. 부모애착 수준 척도>

Ⅰ.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또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결코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문 항			결코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4	나의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부록 2. 장애수용 척도>

Ⅱ. 다음은 귀하가 장애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는 나의 삶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	2	3	4
2	장애로 인해, 나는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	1	2	3	4
3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만족스런 삶을 누릴 수 있다.	1	2	3	4
4	장애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졌다.	1	2	3	4
5	훌륭한 외모와 신체적 능력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1	2	3	4
6	비록 장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해 낼 수 있다.	1	2	3	4
7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성취한다 해도, 나는 결코 비장애인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1	2	3	4
8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장애인들이 해내는 것을 보노라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1	2	3	4
9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능력이다.	1	2	3	4
10	장애로 인해,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의미를 잃게 되었다.	1	2	3	4
11	장애로 인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지낸다.	1	2	3	4
12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13	장애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살아오면서 내가 이룩한 것들은 비장애인들의 삶에 견주어 보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14	신체상의 장애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1	2	3	4
15	내가 하고 자 하는 거의 모든 일들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애는 항상 나의 모든 신경을 기울이게 한다.	1	2	3	4
16	세상에는 나와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	1	2	3	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장애는 내가 가진 그 어떤 특징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1	2	3	4
18	인간의 삶에 있어 다른 많은 것들이 신체적 능력과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다.	1	2	3	4
19	내 인생의 거의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다.	1	2	3	4
20	장애는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	2	3	4
21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2	장애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23	내가 가진 장애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	1	2	3	4
24	건강하고 완전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의 선행조건이다.	1	2	3	4
25	가끔 나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곤 한다.	1	2	3	4
26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1	2	3	4
27	장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고 화나게 만든다.	1	2	3	4
28	장애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1	2	3	4
29	나는 현재 내가 가진 능력에 만족하고 있으며, 내 장애는 나에게 있어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2	3	4
30	모든 부분에 있어, 장애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1	2	3	4
31	건강한 신체와 외모는 그 사람의 정신과 성격을 결정한다.	1	2	3	4
32	나는 나의 장애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부록 3. 진로준비행동 척도>

Ⅲ.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2	3	4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	2	3	4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부록 4.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I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사항에 V표 하거나 간단히 기입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

4. 귀하의 장애유형은? (중복 응답 가능)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기타장애( )

5. 귀하의 장애등급은?
① 1급( ) ② 2급( ) ③ 3급( ) ④ 4급( ) ⑤ 5급( ) ⑥ 6급( )

6. 귀하의 장애는 선천적입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 6-1로 가십시오.

6-1. 장애를 갖고 생활한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① 1~5년 사이( ) ② 6~10년 사이( ) ③ 11~15년 사이( ) ④ 16년 이상( )

긴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l attachment,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Hoon Yoo
Education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l attachment,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this purpose, th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measured by a scal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values', was examined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o test this mediating effec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1 disabled college students in 12 colleges by using self-reported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the variabl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values'. which represents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fully medi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me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counseling for the disabled college students should deal with acceptance of disability as intervention since it can facilitate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 in career counseling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counselors can function as attachment figures to enhance the cli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Lastly, various psychosocial interventions should b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counseling and enducation for parents who have disabled children.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attachment, acceptance of disability, enlargement of the scope of valu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tudent Number : 2012-21337